

신임사무관(총 516명) 정책현장으로 나아가다!

－ 제60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수료 및 시보임용 －

I. 개요

1. 516명의 신임사무관이 22주간의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을 마치고 정책현장으로 나간다.

-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 소속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옥동석)은 지난 9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60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 이날 행사는 22주간의 교육과정 회고, 신임사무관으로서의 공직 다짐의 글(수료소감) 낭독, 태극기 배지 패용, 교육 우수자 시상 등으로 진행되며,
- － 공무원 채용후보자로서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관리하는 사무관으로 시보 임용되는 의미를 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2. 올해 신임관리자과정은 투철한 공직가치와 창의적 직무역량을 갖춘 신임사무관을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 －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공직가치 특별 워크숍(합숙교육)을 비롯해 헌법가치 교육, 통일안보 교육,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직 가치를 함양했으며,
- － 정책사례 연구, 정책기획 실습, 예산 및 법제실무 등 실무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쌓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 － 또한 국토순례, 중소기업 근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험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3. 한편 이날 수료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516명의 신임 사무관들은

-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402명)의 경우 앞으로 7주간의 민간기업 실무수습과 5개월간의 지방자치단체 실무수습을 거쳐 각 부처에 배치되며,
- － 5급 민간경력일괄채용시험 합격자(114명)의 경우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곧바로 일선 중앙행정기관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4. 이날 수료식에서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장지원 행정사무관 시보가 국무총리상을, 문성호, 노유경 행정사무관시보가 인사혁신처장상을 각각 수상한다.
5. 이날 행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신입사무관의 임용을 축하하는 격려와 당부를 담은 영상메시지도 전달되었다.
6. 황교안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公僕)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고, 신입 사무관으로서 남다른 창의와 열정을 갖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어달라”고 말했다.

II. 제60기 신입관리자과정 교육개요

1. 기간 / 대상

- 교육기간 : 4. 13. ~ 9. 11, 22주
- 교육대상 : 5급공채 합격자 402명, 5급민간경력채용 합격자 114명
- ※ 여성은 179명(5급공채 149, 5급민간경력채용 30)으로 전체의 약 35% ('14년 42%)

2. 주요 교육내용

- 신입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 함양
-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
- 초급관리자로서의 정책기획 및 직무역량 강화